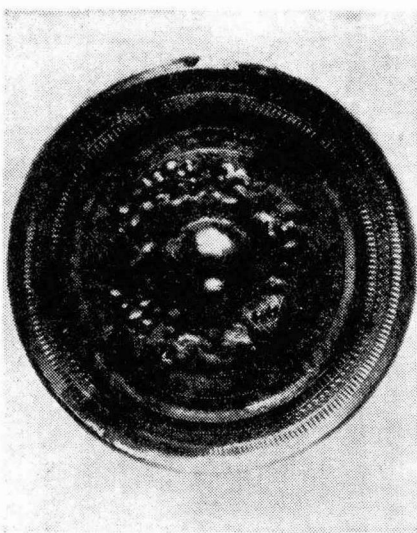


紋이表示되었으며銘帶가이를둘러싸서一段 높은平緣의外區가되
는漢鏡으로서通有한式임을나타내고있다。그리고殘存한內區의圖
像은所謂盤龍——實은龍과虎——가相對하는 모양을鈕를사이에두
고構圖한것이다。

이런種類의鏡은中國에서는일찍이盤龍鏡으로알려졌고遺存例가
적지않은것으로日本古式古墳에서도發見되어크기가비슷한것이數
面있다。그런데이러한數 많은盤龍鏡中에서著名한古鏡蒐集家인日
本の故守屋孝藏氏의遺品 가운데이鏡과같은范으로鑄造된것이있음
은興味있는일이다。兩者가同范의所鑄라는事實은黃氏送致의鏡拓
本을守屋氏의鏡拓本과접쳐본結果細部の線까지全然一致됨으로
서確認되었다。따라서出土鏡의完形은이러한事實을通하여알수
있다。本銘의全文은다음과같고鏡은龍氏의作品인것이다。

龍氏作竟四夷服。多賀君家人民息。
胡美殄滅天下服。風雨時節五
官位尊顯家祿食。長保二親樂無已

文字의○票한것이破鏡에殘存하는部分이다。이銘文에「時節五」
 밑에缺字된「穀孰」의二字를加하면이야말로漢盛時의鏡銘文體인正
確한七字句가되는것이다。이點에서同式鏡中에서는時代가올라가
는鑄造品임을나타
내는것이다。그러
면이러한中國鏡이
옛날百濟의故地에
서出土되었다는것
은當然히注目되어
야할것이다。



지금扶餘의博物
館에있는이鏡에
對하여 처음으로
洪思俊氏의所見은

아마古瓦當과伴出되었다는事實과出土地가百濟의故地라는事實에
重點을두었던것으로생각되나이古鏡이破碎、殘缺이라는點이란
가單純히古瓦와함께出土되었고해서簡單히時代가推定되는것은
아니다。即鏡이오래서紀元二世紀로올라가는以上이境遇 그것
來傳된後四、五百年이나傳世되다가그後에埋藏되었다고는생각되지
않는다。事緣이있어그것이包藏되었던오랜遺蹟이破壞되어副葬品
의하나였던鏡이다시埋沒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그래서같은盤
龍鏡이日本の古式古墳에적지않게副葬되어있는事實과아울러益
山에서의이鏡의出土는古代中國文化가波及된時代를推定할수
있는새로운한資料임이 짐작되는바이다。

參考로添加하지만「古文化」創刊號에所揭된金良善氏의「再考를要
하는磨製石劍의形式分類의祖形考定の問題」의附圖中南鮮出土의古
鏡이二面採錄되어있다。金氏는이것을南鮮古墳에서드물게發見되
는日本の仿製鏡과同一視하고있는듯이 보이는데本益山出土鏡과같
이南鮮에서는드문古鏡의新資料임이推測된다。寫眞이鮮明하지않
으나二面中金海出土라고傳하는內行六弧紋鏡은簡單한圖紋인것인
데對하여慶州出土라고하는다른一面의神獸鏡은틀림없이半圓方形
帶神獸鏡으로外區에銘文이있는式으로이것은漢末에서六朝初에걸
쳐中國江南에서 많이만드렸던것임이認定된다。그리고實物에依하
면外區의銘文도充分히 읽을수 있을것이다。金氏의이新資料에對
한發表가있었으면 좋겠다(秦弘燮譯)。

高靈 古衙洞 壁畫古墳 略報

金 元 龍

昨年 그存在가알려진古衙洞盜掘壁畫古墳에對해서는一九六三年
一月五日字한국일보에「高靈壁畫古墳의歷史的意義」라는小文으로서

先 그 存在을 報告하였으나 그때의 調査는 그저 壁畫確認程度의 極히 粗畧한 것이었고 蓮華文의 細部에 있어서도 誤斷한 點이 있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다. 그後 內部의 仔細한 構造를 밝히고 正確한 實測을 하기 위해 國立博物館과 合同으로 再調査하기로 하여 今年 十一月 二十七日부터 十二月三日까지 國立博物館考古課 金正基氏와 함께 古墳內部를 清掃하고 寫眞撮影과 實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調査結果의 仔細한 것은 앞으로 나올 正式報告書에 미루어야 할 것이나 아직 이 古墳에 對해 畧報하 나도 없어 同學이나 一般들에게 不便할 때가 있을 것 같아 簡單히 그 概要를 적어두고자 하는 바이다.

古衛洞은 高靈邑 中心部에서 거의 正南約二km 未滿에 있는 部落이며 部落뒤에는 낮은 山丘가 있고 앞에는 沓을 사이에 두고 멀리 洛東江으로 습지는 會川이 南流하고 있다.

古墳은 이 部落 뒷산, 部落에 接近하여 三基가 있는데 그中 가운데 것이 이번 에 壁畫墳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古墳은 第一次調査時에는 封土北側에 사암하나가 들어갈만한 盜掘坑이 있었는데 第二次調査時 가보니 高靈郡에서 그것을 埋土하고 封土도 깨끗이 整理하여 흙을 더 올리고 芝草를 심어 墳形이 전혀 달라져 있고 또 南面을 둘러 羨道入口에 木扉를 해달아 一驚하였다.

이 古墳은 會川 即 東方을 向하고 있는 山丘의 末尾傾斜面을 扁平하게 깎아 들어가서 正南北方向의 石室을 築成하고 封土를 덮은 것이며 따라서 山上쪽은 封土가 낮으나 傾斜下部쪽에서는 封土가 顯著하게 되어 있다. 玄室바닥에서 封土頂部까지의 높이는 大略 四·六m 쯤 될 것으로 測定된다.

玄室의 平面은 東西二·七m 南北三·七m 高二·八m의 南北으로 긴 矩形이며 東壁의 壁은 그대로 延長되어 高一·五m 幅一·四m 長五·二m의 若干 바깥쪽으로 上昇하는 羨道の 東壁이 되고 있다. 그리고 羨道와 玄室사이에는 門扉石같은 것을 따로 세우지 않았고 羨道の 末端을 雜石으로 閉塞하고 있었다.

玄室은 不整形 安山岩으로 築成하였으며 그 立面은 東西 兩壁을 上部

에서 漸次로 內傾시켜 南北으로 긴 幅 四六cm의 좁은 天井部를 形成케 하고 四枚의 天井石으로써 덮고 있는데 南北兩壁은 天井까지 直立하고 있기 때문에 玄室內部는 마치 汽車터널 속 같으며 公州宋山里的 博築壁 書墳과 같은 構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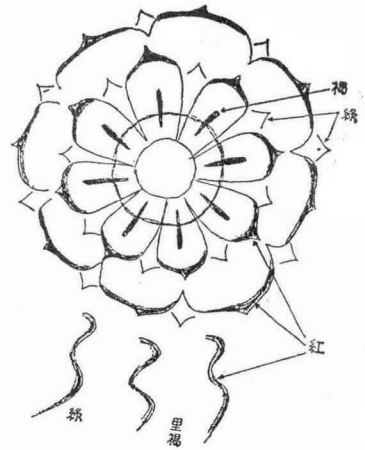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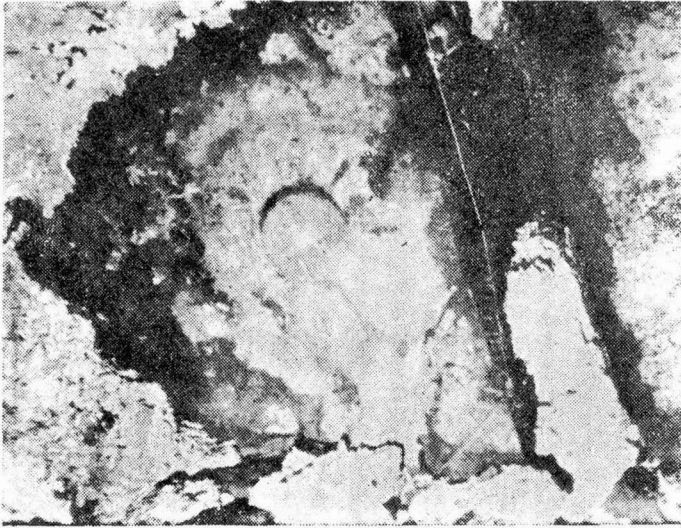
玄室바닥에는 于先 자갈層을 二五cm 程度 깔고 그위에 西壁에 거의 接近해 長二·八m 幅一·四m의 若干 높아진 棺臺를 만들고 그 東쪽, 東壁에 바짝 붙여서 長二·八m 幅〇·八m의 또 하나의 同時 構築의 棺臺를 만들었고 棺臺사이의 三〇m 假量되는 空間및 棺臺上下의 餘白部는 木整形 板石으로 깔고 있다. 棺臺도 板石을 一層 깔고 그위에 灰칠을 하여 平坦하게 만든 것이다. 內部 清掃時 棺臺위에서 人骨片 若干과 鐵釘을 採集하였으며 遺骸는 木棺에 넣어 棺臺위에 놓았던 모양이다.

玄室의 四壁, 天井 및 羨道の 兩壁은 모두 元來는 두텁게 灰칠을 하고 그위에 壁畫를 그린 것이지만 壁의 脫落은 이미 第二次 埋葬時부터 시작된 모양이며 明白히 진흙으로 灰칠한 위를 손질한 痕跡이 보였다.

壁畫는 現在 玄室天井石 및 羨道天井石에 그려진 蓮花文이 뚜렷하지만 玄室南壁上部에도 形態를 알 수 없는 曲線같은 자국이 있고 羨道側壁下部에도 唐草같은 文樣의 흔적이 있으나 原形을 알아 볼 수 없다. 이 壁畫들은 紅, 綠, 褐 三色을 써서 그린 것인데 羨道部 天井石에서는 石面에 直接 그리고 있다.

蓮花의 모습은 別揭 스킷치와 같으며 紅, 綠, 褐 三色을 써서 그린 直徑二七cm의 一種의 二重蓮花이며 그것이 高句麗의 雙楹塚 天井石에서 보는 따위의 蓮花(朝鮮古蹟圖譜二, 圖版 五七)의 系統이면서 花瓣속 에 褐色點을 配置한 것이나 蓮花文 周圍에 있는 S形 雲文等 百濟의 宋山里古墳 壁畫와도 通하는 點이 있고 또 花辨사이 사이에 綠色的 꽃받침을 그린 것 같은 自己固有的 特色도 가지고 있다.

從來 古墳壁畫는 高句麗와 百濟地區에서만 주로 알려져 慶州地區에서 는 꼭 一基의 壁畫石室墳의 存在가 未確認이나 報道되고 있었는데 (註) 이번 에 伽倻地區에서 確實한 壁畫墳이 알려진 것은 石室墳自體의 傳播는 勿論壁畫의 傳播經路를 보여 주는 重要한 事實이라 하겠다. 더구나



여기 石室墳의 玄室이 公州
式의 圓形인點 또 그 羨
道가 統一時代의 慶州地區
石室墳과는 달리 玄室의 東
쪽에 偏在하여 高句麗나 百
濟의 所謂 L字墳과 共通하
고 있는 것도 興味있다. 高
靈의 이 壁畫古墳은 아마 六
世紀中葉가까운 一加耶時代
의 夫婦合葬墓라고 推測된
다.

註：月城郡 內南

面三陵의 橫
穴式石寶에서
羨道와 玄室
의 壁에 壁畫
의 痕跡이 있
었다고 齊藤
忠氏가 그의
「朝鮮古代의
文化」(東京一
九四三年) pp.
146-147
에서 말하
고 있다. 이
것은 一九三
八年에 盜掘
者가 훑고 들
어간 것인데
곧 구멍이 깨

꾸어져 버렸다고 한다.

高麗銅鍾의 新例

崔 淳 雨

最近 H氏의 好意로 異例的인 高麗時代銅鍾 一口를 調査할 機會를 갖
게 되었다. 全高一〇·七cm 口徑一四·一五cm 鐘口두께一·一cm의 小
鐘에 不適하지만 이 鍾身의 形態와 배흘림의 曲線 그리고 龍鈕 甬筒等
鐘頂部의 意匠을 살펴보면 아담한 高麗梵鐘樣式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鐘身部의 裝飾意匠만은 이제까지 例가 없었던 색다른 樣式을 보이고 있
어서 興味가 깊었다. 即 韓國鐘이 지니는 基本的인 鍾身意匠이라고 할
수 있는 上·下文帶 鐘孔 飛天 撞座等 陽鑄文代身에 鍾身上·下 두
層段으로 나누어 各其 八個區式의 方廓文만을 鑄出해서 鍾身들레를 채
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方廓이라 함은 말하자면 額子形을 線描한 것
과 같은 一種의 重線 方形區로서 그 內線과 外線의 方角들을 斜線으로
서로 連結해서 마치 額子들의 짜임새 같이 보여지는 것을 일컫는 것이
다.

鐘身에 이러한 方
廓意匠을 表現한 것
은 開城 演福寺銅鐘
의 佛尊이나 鐘銘等
을 데두르고 있는
廓線에서 이미 그 例
를 볼 수 있었으며
이 演福寺鐘의 方廓
配置역시 上·下 두
層段으로 나뉘어져

